

광주시교육청 '물품구매 투명성' 높인다

물품선정자 구성·운영기준 전면 개정...외부위원 확대 블라인드 평가·지역 업체 가산점 등...최근 관련 교육도

광주시교육청이 물품구매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물품구매 청렴도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시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물품선정위원회에 전문가 등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객관적 평가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물품선정위원회 위원은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중 외부인원을 2분의1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물품 구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의 경우 2분의1 이상인 외부위원을 의무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 위해 위원수 대비 3배수 인력풀을 사전에 확보해 운영한다. 평가 기준도 기존 자율평가에서 3개 물품·업체 비교평가 방식으로 변경하고, 블라인드 평가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 지역업체·사회적 약자 가산점을 적용해 공공구매가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물품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서 각 학교와 기관 업무 담당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물품구매 투명성 확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문 청렴강사를 초빙해 '2024년 광주교육청 청렴 정책'을 소개하고, '청탁금지법', '청렴과 소통의 관계'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으로 물품구매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어 기자

광주향교 '추기 석전대제' 성료 전국 첫 영상 중계...女 초현관 참여

광주향교가 10일 오전 유림과 시민들의 참여 속 추기 석전대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석전대제는 매년 춘기(음력 2월 첫 정일)와 추기(음력 8월 첫 정일)에 향교에서 행하는 제례의식이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돼 있으며 모든 유교적 제사의식의 모본이자 가장 규모가 큰 제사다. 이번 석전대제는 공자를 비롯한 4성(四聖)과 송조 2현 그리고 우리나라 18현을 모시는 제향 의식으로, 142만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대성전에서 진행된 제례의식을 명륜당 앞뜰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중계를 전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이 전통 혼례복을 입고 제를 지내는 광주향교 첫 여성 초현관으로 참여해 역사적 인장면을 연출했다. 신 의장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인 추기 석전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선성현의 정신을 계승하고 광주의 인문적 가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석 광주향교 전교는 "이번 석전행사는 시민과 함께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향교는 전통문화체현 및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전통문화살롱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공자탄생과 유교 선현을 기리는 추기 석전대제(釋奠大祭)가 10일 오전 남구 구동 광주향교에서 지역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고 있다. 이날 석전대제에서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광주향교 첫 여성 초현관으로 참여해 제례를 올렸다. /김영근 기자

'4파전' 전남대 총장 선거 본격 돌입

오늘 합동 연설·내일부터 4차례 공개토론...25일 온라인 투표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 선거에 4명의 후보자가 최종 등록했다. 10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9-10일 이틀간 이뤄진 후보자 등록 신청 결과 이근배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김재국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송진규 건축학과 교수, 한은미 화학공학부 교수 등 4명이 등록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11-24일 14일간 선거 운동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온라인 투표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자들은 11일 오후 2시 민주마루에서 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동 연설회를 하고 12일 용봉홀(오전 9시30분·오후 2시), 20일 화순캠퍼스 교육정보동 대강당(오후 2시), 23일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오후 2시) 등에서 4차례 공개 토론회를 거친다. 합동 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선거 참여 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2%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100%, 교직원 17%, 학생 10%, 조교 3.5%, 강사 2.5%다. 오는 25일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득표 순으로 2위 이내의 후보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과반 득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 후보자 등 최종 2명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한다. /김다이어 기자

후보자들은 11일 오후 2시 민주마루에서 대학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동 연설회를 하고 12일 용봉홀(오전 9시30분·오후 2시), 20일 화순캠퍼스 교육정보동 대강당(오후 2시), 23일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오후 2시) 등에서 4차례 공개 토론회를 거친다. 합동 연설회 및 공개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선거 참여 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2%에서 1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총장 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수 100%, 교직원 17%, 학생 10%, 조교 3.5%, 강사 2.5%다. 오는 25일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득표 순으로 2위 이내의 후보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과반 득표 후보자와 차순위 득표 후보자 등 최종 2명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한다. /김다이어 기자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6:12 해질 18:45
🌙 달돋이 13:45 달지 23:08

광주	구름비	25/30
목포	구름비	26/31
여수	구름비	26/30
나주	구름비	26/31
완도	구름비	26/31
구례	구름비	25/31
강진	구름비	26/31
해남	구름비	26/31
장성	구름비	25/31
보성	구름비	25/29
순천	구름비	26/31
영광	구름비	25/31
진도	구름비	26/31
흑산도	구름비	25/31
고흥	구름비	26/30

● 생활정보지수

🍷 **너들이 30** 🧺 **빨래 20** 🚗 **세차 30** 🏃 **운동 40**

우산 챙기세요 실내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우비 필요해요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북)	1.5-2.5	1.5-2.5
	면바다(남)	2.0-3.5	2.0-3.5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동)	1.0-2.0	1.0-2.0
	면바다(서)	1.0-2.0	1.0-2.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6:33	11:44
	19:32	--:--
여수	00:43	06:54
	13:50	20:19
녹동	01:24	08:03
	14:41	22:05

●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9월 12일(목)	☁ (25/32)	☁ (25/30)	☁ (23/26)	☁ (24/31)	☁ (27/33)
13일(금)	☁ (24/33)	☁ (25/29)	☁ (24/29)	☁ (25/32)	☁ (26/32)
14일(토)	☁ (24/33)	☁ (23/29)	☁ (22/27)	☁ (22/28)	☁ (25/30)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추석 연휴 119재난상황 관리 강화”

광주소방, 의료상담 보강 등 응급의료 적극 대처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0일 “추석 연휴기간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오는 13-19일 119재난상황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5일 동안 광주지역에서는 총 5천49건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1일 평균 1천10건으로, 지난해 1일 평균 877건보다 약 15% 증가한 것이다. 119종합상황실은 119신고접수시스템과 경찰 등 비상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 인력을 사전 편성해 연휴기간에 신고 폭주 등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안내 등 응급 의료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응급 환자 처치와 병원 이송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의료 상담 접수대를 기존 2대에서 4대로 증설하고 전문 의료 상담 인력도 3명에서 5명으로 보강한다. 나홍일 119종합상황실장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약국 안내 등이 필요할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119를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정겨움이 느껴지는 숲속장터

담양시장

담양지역 상업의 시발점인 담양시장은 그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시장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 366호인 관방제림의 연속산상에 있으면서 200여년 이상 된 나무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숲속장터이며, 시장점포 위쪽 제방위와 하천변에 200여분 이상의 노점상인들이 위치하여 정겨운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대전시장 장날 : 매달 3일, 8일

청죽시장 장날 : 상시영업

매달 2일,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담양군

문의 : 062)650-2099